

신향락 칼럼



이사·주필

지자체의 가슴앓이 ‘계륵’(鷓鴣)

함하면 6000억 원이 넘어설 수도 있다. 전남도와 산하 공기업 부채가 1조 906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F1대회 한 행사가 3분의 1 가까이 빚을 안긴 셈이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로서는 선부름 판단 때문에 ‘호랑이 등’에 탄 격이 된 것이다.

‘호랑이 등’에 탄 F1대회

나비축제로 인지도를 높인 함평군은 전체 예산 중 10분의 1도 자체 수입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 6.05%의 가난한 지자체다. 그런 까닭에 함평군은 지난해 4월 한 달간 열기로 한 ‘2013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개최를 포기했다. 군비 97억 원을 포함한 167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데다 행사 이후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8년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치르면서 ‘속빈 강정’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함평군으로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시 군은 엑스포 행사기간 관광객 120만 명을 유치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3년 뒤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성공과 거리가 멀었다. 애초 예산보다 196억 원이 추가된 549억 원을 투입하고도 수익은 137억 원에 그쳐 412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봐야 했다.

함평군의 올해 예산은 2681억 원, 하

지만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45억 원에 불과하다. 그 돈으로는 공무원들에게 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세계 행사 한 번 치르고 엑스포공원 관리비로 매년 17억7800만 원씩 출혈하고 있으니 이 또한 ‘계륵’이 아닐 수 없다.

‘혈세 먹는 하마’로 통하는 광주2순환도로 역시 ‘냉가슴’의 전형적인 예다. 지난 2001년 1월1일 1구간 개통 이후 광주시가 순환도로 운영사인 맥쿼리에 뜬금 돈만도 3000억 원, 한해 평균 230억 원씩 헌납해야 했다.

광주시가 운영사에 코를 꿰이게 된 1차적 요인은 엉터리 자료를 제공한 용역기관에 있었다. 순환도로 건설 투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근거가 되는 광주의 예상 인구, 민간자구간 자동차 통행량 추정치 등이 20~30% 이상 빗나간 때문이다. 용역기관이 판단한 2013년 인구와 통행량이 100이라면 실제 인구는 69에 불과하고, 통행량도 73에 그쳤던 것이다.

사업자에 돌아난 순환도로

시는 그 차이만큼 재정 보조를 해주기로 도장을 찍었기에 지금까지 쏟아 부은 액수만 1393억 원에 이른다. 어떻게 이런 ‘배추장사 셈법’이 나왔으며, 광주시가 보안을 위한 탄력적 계약 내역에 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지 의

문이다. 맥쿼리 측의 ‘장난’도 가관 그 자체였다. 지난 2003년 자기자본금 543억 원으로 순환도로 운영권을 따낸 맥쿼리는 자본 구조를 바꿔 오히려 2000억 원이 넘는 부채회사로 주저 앉았다. 그러면서 빚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광주시에 보전을 요구, 10년간 1401억 원을 뜯어냈다.

당하기만 하던 광주시가 자본 구조의 임의 변경이 위법임을 내세워 지난 해부터 이자와 재정지원 중단, 운영권 회수 등에 나섰지만 맥쿼리 측이 법으로 맞서면서 상황은 유동적이다. 결과적으로 광주시 부채 7987억 원 가운데 3000억 원 가량을 무능과 무기력이 보낸 셈이다.

이상 열거한 세 가지 외에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사업이든, 축제든 냉가슴을 앓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 모두는 출혈이 뻥뻥인데도 선심성 치적을 의식한 단체장의 소영을 주며, 내 돈이 아니라는 무책임의 산물이다. 마른 건도 짜야 할 판에 지자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면 이는 특가 법상 배임에 해당되며 두고두고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양면의 칼날이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빛만 쫓다 보면 제 그림자를 볼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민선 6기 단체장들이 두고두고 새겨야 하는 이유다.

은편칼럼



송민석 전 여천고등학교 교장

‘학생부종합전형’ 소고(小考)

생 선발 방법에 따라 한국교육의 방향이 요동쳐왔다. 고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려면 대학에서 먼저 그러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 수능 점수만의 단순한 것보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과 능력을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등장한 것이 ‘입학사정관제전형’이다. ‘입학사정관제전형’이 현 정부에 와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내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변화는 우선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각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학생들이 주요 교과 이외의 봉사활동, 진로활동, 체험활동 등의 의미를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주목한다. 학원이 아닌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취하고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능동적인 인재를 찾는 ‘입학사정관제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부’다. 교과 성적(내신)과 비(非)교과 활동이 담긴 학생부를 토대로 대학들이 지원자의 자질과 발전 가능성을 가늠한다.

서류평가 과정에서 보면 학교에서 지정한 동아리 외에 학생 자율동아리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또한 성적은 우수해도 진학하려는 대학에서의 전공과 연관된 교내 활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제능 동아리뿐으로 교과 관련 탐구·학습 동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진로와 연계한 활동, 학교에서 시키는 제도화된 활동보다 자기 주도적 성향이 드러나는 활동일수록 호감을 살 수 있음이다. 학력저하로 인한 ‘일반고 위기’ 이야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부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 교내 행사기록만 있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찰기록이 없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예를 들면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를 통해 민주적 질서를 배우고’라는 상투적인 기록을 대학에서는 원치 않는다. 참여 동기와 과정, 변화된 모습과 같은 그 학생만의 생생한 관찰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입학사정관들을 에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입학사정관제 대비한 담담하고 별 의미 없는 내용으로 학생부 양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다.

학생부에서 ‘성실하다’ ‘모범적이다’라는 식의 모호한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경우도 흔히 본다. 반면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고 있

다. ‘국제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 모의증권투자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대학에서는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교육부가 ‘일반계고 살리기’에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학생선발권을 가진 특목고·자사고 등을 확대해 이들이 대학 입시를 휩쓰는 외부 구조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교 다양화 정책은 수직적 서열만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학생선발의 자유보다 일반고에도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전체 고교의 70%를 차지하는 일반고는 공교육의 본산이기 때문이다. 존재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자사고 중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준비도 함께 서둘러야 한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인기영합주의로 접근해서는 안 일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서상문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임장부장

문화로 하나되는 광주 U대회를 위하여

대회가 개최된 이래 매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8회 대회가 된다.

조직위는 내년 대회에 170여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모만으로 보면 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행사이다. 2009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개최가 결정된 이후 친환경, 평화우호, IT대회, 문화대회라는 네 가지 비전 중의 하나로 문화대회가 채택된 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여진다.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가 국제적으로 문화역량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좋은 계기가기 때문이다. 올 해만 해도 지난 3월 개막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젝트는 광주시민들에게 커다란 문화적 자부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고 올해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와 오는 10월 준공을 거쳐 내년 개관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은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전후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문화프로젝트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광주의 거시적 문화발전 과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문화행사 준비를 위해 여러 유관 문화기관들의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무엇보다 U대회 문화행사를 통해 광주시 및 인근 문화클러스터 지역에 소재한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체 추진 프로그램을 현장 전개형으로 구성하여 조직위에서 추진하는 선수촌 문화행사, 전야제 등 행사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거나 문화행사 개최 시기를 U대회 기간으로 조정하거나 홍보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U대회는 아마추어 대회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난 선수나 참가자들이 경기일정이 끝나고 바로 귀국하지 않고 주최국의 문화관광 자원을 둘러보며 견문을 넓히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광주시는 물론 인근 지자체나 관광업체들이 협력하고 조직위에도 함께 하는 가운데, 네트워크를 이루어 시너지를 연계나 홍보 협조 등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U대회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대학생 대회이자 아마추어 대회로 상업

적 성격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오바마나 푸틴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거쳐 갔는가 하면 세계적 유명 선수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뽐내는 예비올림픽의 성격도 있어 재미있는 관련 포인트가 많다는 점을 들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시민은 물론 특히 중고등학교나 대학생 등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내년 대회기간(7.3~14)이 방학이나 기말고사 일정과 겹치는 점을 감안한다면, 많은 학생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이해와 협조도 절실한 상황이다.

대회 유치 결정 이후 조직위는 그동안 광주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들의 성원 속에 대회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바로 당신(U, You)의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참여로 대회의 가치가 한 단계 더 빛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다. 1년 후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결과가 기대하며 관계기관과 대학생들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社說

야간자율학습 폐지 여부 신중 기하라

광주시 교육계가 야간자율학습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인성교육을 표방하는 광주시교육청은 폐지하지는 않는데 반해 고교 교장들은 광주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영암군 삼호면 호철 현대에서 열린 ‘광주지역 중등 교장단 워크숍’에서 교장들은 “광주만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보교육감들이 뜻을 모아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A고 교장은 “일반계 고등교육 선생님이 밤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보상은커녕 참교육 위반과 인성성 발달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구도에서 우리만 안 할 수는 없기에 진보교육감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장화국 교육감은 “다른 시·도는 광주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핑계를 댄다”며 “전국의 진보교

육감들이 뜻을 모으면 따르겠는가. 그렇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하는 대목이다.

장 교육감은 4년 전 취임과 동시에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온 야간자율학습 단축, 방학 중 자율학습 제한 등 지나칠 정도로 규제해왔다. 실력보다는 인성교육에 치중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성적 하락을 우려한 사립학교 측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우리는 고교 교장들이 지적인 데로 야간자율학습 폐지 여부는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학입시를 두고 특정지역만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광주지역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떨어저 우려를 자아냈던 게 사실이다. 장 교육감은 현재 광주교육이 처한 상황을 직시, 안정과 균형을 통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정책의 주안점을 뒤야 할 것이다.

‘알바’ 청소년 우리는 근로 착취 근절해야

여름방학을 맞아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업주들의 근로착취 행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안심 알바 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교생들의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75건이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75건, 2013년엔 10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피해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각각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58건, 임금지급 원칙 위반도 20건이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건, 카페 8건, PC방 5건, 기타 24건 등이었다.

이 같은 신고 건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어렵잖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미미하다. 일부 악덕 업주들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신분을 이용해 신고를 못하게 막기도 한다.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 구제 여부는 미지수여서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사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알바’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주역인 그들이 처음 일터를 경험하면서 서투르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막으려면 광주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알바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부터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나서 청소년 고용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無 等 鼓

1952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상공에 인류가 접해보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미지의 비행물체가 출현했다. 당시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긴급 격추명령을 내렸지만, 그 물체는 소멸과 출현을 반복한 뒤 유유히 날아가 버렸다.

미국 전역을 패닉에 빠뜨린 이 워싱턴 사건을 계기로, 그때까지 ‘비행접시’라고만 알려졌던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는 UFO(Unidentified Flying Objects·미확인비행 물체)라는 정식 공군 용어로 불리게 된다.

이후 UFO의 정체에 관해서는 온갖 가설(假說)이 쏟아져 나왔다. 우주선(宇宙船) 설을 필두로 비밀병기라는 설, 지구 내부 지하도시에서 날아온다는 설, 해저기지에서 발사됐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공중생물설, 타임머신설을 비롯하여 인간의 무의식이 실제화되었다는 ‘정신 투영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미국중앙정보국(CIA)이 “The CIA and the U-2 Program, 1954-1974”라는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UFO논란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

고 있다. CIA는 보고서 제2장에 ‘U-2 s, UFOs, and Operation BLUE BOOK’이라는 단락을 따로 마련, ‘UFO는 고공 정찰기인 U-2기를 (사람들이)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U-2기가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었던 높이에서 비행을 했던 데다, 동체가 은빛이어서 태양을 반사하면 불타는 물체(fiery objects)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CIA는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기 상층부 얼음결정에 햇살이 반사된 것이 UFO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거짓 설명을 해왔다.

냉전시대의 국익을에 관해서는 온갖 가설(假說)이 쏟아져 나왔다. 우주선(宇宙船) 설을 필두로 비밀병기라는 설, 지구 내부 지하도시에서 날아온다는 설, 해저기지에서 발사됐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공중생물설, 타임머신설을 비롯하여 인간의 무의식이 실제화되었다는 ‘정신 투영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미국중앙정보국(CIA)이 “The CIA and the U-2 Program, 1954-1974”라는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UFO논란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

UFO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생활부 2200-661 여문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